

# 양주시 농정평가 優秀시로 선정

## 친환경농업육성에 우수한 평가 받아

양주시가 2006 농정평가 우수 시·군 종합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우수시로 선정돼 11월1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개최된 경기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기관표창과 함께 1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받았다.

이번에 실시한 농정 평가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종 농림사업 분야 추진실적과 시군별

차별화정책, 사업추진 노력도 등 농정 전반에 대한 추진 사항을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경기도는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한 각 시·군의 농업 발전의 저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기농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템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 농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양주시는 양주풀 한우브랜드 명

품화사업을 비롯해 친환경 고품질의 양주 쌀 생산 ▶수출농업 양주골 배 육성 ▶친환경농업육성사업 등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높게 평가 받아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또한 제7회 경기도 고품질 축산경진대회 양돈분야 참미원 브랜드가 최우수, 한우분야 양주풀 한우브랜드가 우수로 선정 되어 제11회 경

기도 농업인의 날 영예의 수상을 받았으며 명실공히 양주 농축산물 우수성과 최고상품으로 인정받았다.

이희섭 양주시 농정담당은 "이번 2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수상을 계기로 양주 시 농업인의 노력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여 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주민과 함께 하는 治安활동**  
양주경찰서(서장 김덕기)는 지난 4월부터 '주민과 함께 하는 치안활동'을 전개하여 관내 범죄 발생률을 최소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절도발생 예방하는 가정이나 공장 사무실 등에 방범기구인 '도어경보기'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지역 치안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새마을 가족 사기앙양'

## 2006 양주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양주시 새마을지도자(회장 유영도) 11월1일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체육관에서 임충빈 양주시장, 원대식 시의회의장 도·시의원, 새마을 지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 양주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새마을운동 양주시지회는 행복도시 양주,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양주 건설을 위해 지역사회의 어두운 곳을 찾아 사회봉사활동과 사회안전망 지키기로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새마을 가족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한마음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영도 지회장은 대회를 통해 "30여년전 새마을 운동의 불꽃이 처음 지펴진 이래 우리 새마을가

족들은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스스로의 혁신을 거듭하고 우리의 후손과 우리고장을 위해 더욱 힘써 노력하자"고 말했다.

1부 행사는 한국교육개발원 조육현 강사가 초청 '도덕성회복을 위한 예절교육' 특강을 실시했으며 새마을운동 발전 공로가 인정된 공적면지도자 변천우씨와 양주1동 부녀회 류화자씨 등 6명이 경기도새마을유공지도자 표창을 실시했다.

백석읍지도자 정성호씨 등 9명이 양주시장 상을, 양주2동 지도자 김경아씨 등 7명이 국회의원 상을, 장흥면지도자 박화주씨 등 7명이 시의회의장상을 은연면 지도자 유석준씨 등 7명이 지회장 상을 받았다.



양주시 새마을지회는 11월1일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체육관에서 임충빈 양주시장, 원대식 시의회의장 도·시의원, 새마을 지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 양주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2부 행사 명랑운동회에서는 새마을 가족들이 참예로 나뉘어 2인3각 달리기, 공굴리기, 풍선세우기, 의자이어달리기 등을 통해 협동심을 키웠으며,

이어서 열린 장지랑에는 읍·면·동을 대표하는 새마을지도자 13명이 참석해 저마다의 장기를 뽐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남면분회 노인회관 준공식**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남면분회(회장 고감춘) 준공식이 7일 임충빈 양주시장, 원대식 시의회의장, 이항원 도의원, 기관단체장, 노인회회원 및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6억2천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1층은 경로당, 2층은 분회사무실 및 건강관리실, 3층은 다목적회의실로 312평 규모로 되어 있다.

# 이웃 사랑 실천 話題

## 김중남氏 시각장애인 초청 자장면 대접

동두천시 생연2동에서 중화각을 운영하는 김중남씨는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오는 11월8일 오후에 시각 장애인 및 가족을 모시고 자장면 점심 대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중남씨는 중화요리 식당(중화각)을 운영하면서 생연2동 새마을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으며 식당운영 수익금중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장면을 접대하고 있는데 겨

울을 재촉하는 가을비로 날씨가 추워진 가운데 시각장애인 및 가족 80여명을 초청해 자장면을 대접했다.

김중남씨는 매일 주변의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시고 자장면을 접대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힘이 닿는대로 자장면 봉사를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동두천시 생연2동에서 중화각을 운영하는 김중남씨는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오는 11월8일 오후에 시각 장애인 및 가족을 모시고 자장면 점심 대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 군부대 웃음 훈련 클리닉

## 육군 28사단 웃음강사 이미소씨 초빙강연



육군 28사단은 최근 태평회관에서 사단사령부 및 직할부대 간부를 대상으로 웃음 강사로 유명한 이미소씨를 초빙하여 웃음훈련 클리닉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에서 이미소 강사는 웃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법과 웃는 요령에 대해 설명한 다음 참석한 간부들이 직접 실습에 동참하도록 하여 강연 시간 내내 웃음바다가 되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유홍렬 대회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이 웃을수록 좋다는 것을 깨닫는 강연이었다"며 "앞으로도 항상 이가 보이게, 크게, 온몸으로 웃으며 살겠다"며 교육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미소 강사는 한국 웃음 건강협회 서울교육원장과 한세대 및 한국능력협회 특강교수로 활동하면서 우리방송 '함께 웃어요' 특강을 실시하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 연천군, 12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기간

연천군은 오는 12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요인별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초동 진화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산불방지 근무태세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확립을 위해 산불방지 인력, 조직 및 장비를 일제장비하고 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상황반, 진화반, 지원반, 홍보반을 편성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다.

군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537명의 비상근무 조를 편성하고 기간 중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산불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산불빈도가 높은 민북지역,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감시, 순찰활동과 계도활동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각종 매체를 이용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동시에 산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토·공휴일 비상근무를 및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산불의 조기발견 및 진화를 위해 산불취약지역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 2개소 운영요원을 지정 감시 모니터링, 군자산 등 감시탑 11개소와 산불감시원 30명을 적극



연천군은 오는 12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요인별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초동 진화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다.

활용해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키로 했다.

한편 읍·면 중심 산불방지 체제 구축을 위해 산불 발생시는 10개 읍·면에 보유중인 진화차량을 이용 합동진화출동태세를 갖추는 등 이상, 새마을지도자 전원을 산불명상시 모니터링, 군자산 등 감시탑 계도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군관계자는 최근 가뭄으로 건조기가 지속되어 산불 예방과 사태발생시 초기진화를 위해 만발의 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중한 인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군민들의 주의와 주인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2006청소년 어울마당 한여울 축제

## 연천군 전곡중학교 1천200여명 참석

연천군 전곡중학교는 11월2일 학교 다목적체육관에서 학생, 학교운영위원, 지역주민 등 1천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로 한여울 축제 개최했다.

이날 축제는 학생들의 개성과 특기, 자유로운 표현으로 성취감과 자아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음악회, 반별합창, 가요·댄스 공연대회, 퓨전음악공연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한마당 축제를 계기로 평소학업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심신을 단련하고 교사와 학생, 지역주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연천군 전곡중학교는 11월2일 학교 다목적체육관에서 학생, 학교운영위원, 지역주민 등 1천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로 한여울 축제 개최했다.

# 새마을지도자 内部역량 극대화

## 동두천시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400여명 참석

새마을운동 동두천시지회(지회장 김경자)는 11월3일 동두천시종합운동장에서 정성호 국회의원을 비롯 도의원, 시의원 및 유관기관 단체장과 7개동 새마을지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련대회는 배구, 족구, 피구, 400m 계주 등 4개 종목을 동 대항전으로 실시해 회원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및 내부역량을 극대화 하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도 했다.

이병기 동두천시 부시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사랑의 김장 담궈주기, 수해복구 자원봉사, 사랑의 쌀·송편나누기, 방역활동, 사랑의 집 고쳐주기, 독거노인 및 말란한 해주기 등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



로도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활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새마을운동 동두천시지회는 어려운 이웃돕기 기금마련을 위해 1년동안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원들이 땀흘려 경작한 휴경기 농작물 수확을 통해 마련되는 기금으로 11월중에 부녀회원들이 직접 담근 사랑의 김장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눌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어려운 이웃 도와주세요"

## 생연1동 새마을 남·녀협의회 사랑나누기 바자회

동두천시 생연1동 새마을남·녀협의회(회장 김선진, 부녀회 회장 김경숙)는 11월8일 늦은 날씨 속에서도 오전11시부터 오후3시까지 생연1동 동사무소 앞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나누기 바자회를 개최했다.

바자회 행사는 잔치국수를 비롯한 빈대떡, 보쌈, 막걸리 등 우리민족 고유의 먹거리인 푸짐한 음식바자회로 치러졌고, 참가자 모두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데 즐거워했다.

행사를 위한 음식은 며칠 전부터 김치를 담그는 등 정성스럽게 미리 준비되어졌고, 행사일 이른 새벽부터 새마을 협의회를 비롯한 생연1동 사회단체 위원 및 회원들이 내일처럼 참여하며 도와주어 동주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훈훈한 장이 되었으며, 각각각층의 많은 분들이 기대이상의 뜨거운 성원과 참여로 호응해주어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날 행사에서 생기는 수익금 전



동두천시 생연1동 새마을남·녀협의회(회장 김선진, 부녀회 회장 김경숙)는 11월8일 늦은 날씨 속에서도 오전11시부터 오후3시까지 생연1동 동사무소 앞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나누기 바자회를 개최했다.

액은 어려운 이웃의 겨울철 월동 김장을 담그지 못하는 어려운 세대(약50여세대)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